

대학생의 창업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하규수^{1*}, 윤백중¹

¹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Recognition of Business Failure and Succes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Kyu Soo Ha^{1*} and Yoon Baik Jung¹

¹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요약 창업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고용을 창출하여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개인의 측면에서는 소득원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창업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성과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창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가 창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창업의 성공에 대한 태도는 창업의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 실패에 대한 창업 태도는 창업의도에 부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시장전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실패와 시장전망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 실패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중요한 원인으로 규명되었으므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창업교육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attitude of university students on start-up business. The premise of this study is that the recognition on business success and failure is not the same for college students. The focus on this study is analyzing the relations of expectation of students on business start-up and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expectation to the business success has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while the expectation to the business failure has nega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Second, the negative expectation to the market condition has nega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s a control variable. The result of the survey is meaningful that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is affected by the tendency of the business failure factors.

Key Words : Entrepreneurial intention, Business failure, Business success

1. 서론

창업이 지니는 중요한 의미는 국가경제의 발전된 미래를 약속해 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0 4분기 부도 중소기업은 649개로 전년 동기에 비해 50% 늘어났다. 그러나 작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도 191개로 44% 증가했고, 작년 9월 606만 명이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 1월 558만 명으로 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만 4천여 명으로 작년에 비해 60% 가까이 증가했다[19].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창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창업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러나 창업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창업과 창업자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창업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

*교신저자 : 하규수(ksh@hoseo.edu)

접수일 11년 03월 17일 수정일 (1차 11년 07월 14일, 2차 11년 08월 03일, 3차 11년 08월 09일) 게재확정일 11년 08월 11일

한 전통적인 접근법 중 하나로서 창업자의 배경적 특성 즉, 학력, 성별, 연령, 경력, 또는 경험 등과 같은 창업자의 배경으로부터 나오는 인구 통계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다[5, 16, 23, 31, 33]. 이 외에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으로 설명되는 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추구(risk taking), 혁신(innovation) 등 개인적 고유한 특성(personal traits)이 창업의 의사결정 및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명하고[5,6,10,21,30,32,34,36], 이러한 특성들이 창업가와 비창업가를 구분하는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다[8,9,13-15]. 그러나 한편으로 창업의 성공인 자신감과 실패로 인한 심리적 두려움이나 손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성지미·안주영[7]도 자영업에 대한 태도가 사업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으며, 하규수[17]는 기업가의 실패에 대한 태도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창업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Kim[29]은 자영업 진출이 거시경제변수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 연구해 왔지만 아직은 자영업과 경기상황, 실업 등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이들 관계에 대해 뚜렷한 결론이 나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의 창업관련 연구들은 창업가 특성이나 창업 성공요인 등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는 창업실패에 초점을 두었다. 취업의 대안으로서 창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창업성공의 이면에는 창업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창업실패에 대한 연구 및 관심은 부족하다. 지금까지 창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창업의도를 예비창업가의 내적요인이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예비창업가의 특성을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많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 창업가의 특성을 창업에 대한 실패인식과 시장상황과 같은 상황적인 요소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창업에 대한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패에 대한 대처 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창업교육에 활용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창업에 대한 인식과 창업의지

기업의 창업은 경제발전, 고용창출의 긍정적 효과를 통해 국가 및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잠재적 창업가들의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가 중요하다. 창업을 준비하는 잠재적 창업가들 즉,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태도는 국가별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차후 창업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창업에 대한 태도는 각 국가의 일반적인 문화 및 사회적인 분위기, 경제, 정치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진행하는 예비창업가 지원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재무적 투자 자본금의 확보 등 더 구체적인 요소들의 영향으로 인해 좌우되기도 한다. 또한 창업에 대한 태도는 각국의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창업교육의 참여 비율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자신이 창업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지니고 있음에 대한 인식 및 확신이 부족한 개인들이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개인들의 창업가적 성향을 밖으로 끌어내는 데 있어 창업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내의 창업 경험이 없는 대학생과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업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한 결과 몇 가지 특징적인 성향이 나타났다. 첫째, 비창업가들은 실제로는 창업가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창업을 하기에는 스스로의 기술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창업가로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하고 포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 최상의 기회를 인식하고 포착하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제약을 덜 받는다. 그러나 한국의 비창업가들은 향후 3년 안에 창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며[4], 이는 창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관심이 저조한 편이지만 창업에 대한 열망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대용[15]은 창업과 창업 성공은 사회적 위상을 높여주는 야심찬 목표가 되기도 하겠지만 실패로 인하여 입는 사회적 위신손상은 창업시 인식되는 위험이 큰일들을 시도하여 성취하겠다는 도전 의욕마저 주저하게끔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새로이 시작한 창업에서 실패 체험은 그 실패로부터 오는 당혹감(embarrassment)으로 연결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당혹감은 재무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들이지만 창업의욕과 창업 스트레스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신모[11]는 창업에 대한 사회의 불안의식 및 부정적 시각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취업 등 다른 직업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창업경로에 끌어들이지 못하는 장벽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서정해[9]가 한·중·일 대학생들의 창업과 기업에 대한 의식을 파악한 결과, 많은 대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기업가가 되기를 희망하며, 기업가를 매우 유망한

직업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 대학생들은 기업가적 의욕, 경험과 지식 등과 같은 기업가적 특성에 대한 자기평가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 성공을 통해서 성공에 대한 인식과 창업의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강조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잠재적 창업가들의 지각과 기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창업의도에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이 가능할 것이다.

가설 1: 창업의 성공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창업의도는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창업의 실패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창업의도는 감소할 것이다.

2.2 창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와 시장 전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창업은 사업 아이디어로부터 많은 시행착오, 환경에 대한 학습 및 연구,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사업기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사전에 창업에 대해 시장전망과 사업타당성 분석을 면밀히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창업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창업에 대한 결정과 시장전망과의 관련성에 대해 아직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지는 않는다. Venkatraman[35], Kim[2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로 거시경제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경기상황과 창업 및 자영업선택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rum et al.[20]은 미국내 주별 비교분석을 통해 노동시장의 규제 수준에 따라서 자영업자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재우·최호영[3]에서 경기변동과정(외환위기 과정)에서 상당 규모 자영업이 증가하였으며, 전병유[14]는 금융자본이나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실업률지표 등을 포함하여 인적자본 및 기업가적 자본이 자영업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노동시장이나 경기변동의 여건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실업률은 자영업 선택에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승·조준모[1]은 자영업 진출과 경기상황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자영업 진출과 경기상황과는 매우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상황이 나빠지면 자영업 진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자영업이 대체로 자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불황에 어쩔 수 없이 밀려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현[13]은 창업률은 시장제공기회의 실질평균임금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질평균임금의 증가는 시장제공기회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에 비례하여 창업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의 선택은 시장의 상황에 대한 태도와 창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결합하여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가설 3: 시장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창업의 성공에 대한 인식은 창업의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시장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창업의 실패에 대한 인식은 창업의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창업에 대한 태도 및 인식, 경기 및 시장 전망과 창업의도를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 고찰과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표본 추출방법은 비확률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의 유형 중 편의표본추출을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남녀 구분 없이 잠재적 창업가인 창업전공인 대학원생, 창업 동아리 등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9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약 30일간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총 500부 배포되었으며, 이중 응답이 부실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은 437개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사회과학 통계패키지인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가설검증을 위한 각 연구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 창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창업에 대한 성공에 관한 문항은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성공한 사업가에 대한 이미지 등을 묻는 문항으로, 창업의 실패에 대한 문항은 실패에 대한 스트레스는 및 기업 또는 창업을 하면서 실패 및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감을 묻는 문항으로 Boyd and Cumpert[22], Dollinger[24], 김원형[2], 한정화·백윤정[18], 하규수[17]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 자신감과 성공 및 사업실패 부담감 및 압박감 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창업에 대한 성공 및 실패에 대한 관련된 문항을 총 10개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둘째, 시장전망: 경기변동 및 시장전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통계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장전망을 창업의 제도적 및 자금지원, 판로 개척의 용이성, 경기전망, 인력 및 사업장 설립에 대한 주관적 태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셋째, 창업의도: 창업의도는 장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에 관한 자신의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되었으며, 김원형[2], 이지우[12], 하규수[17]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창업에 대한 욕구와 의지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3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수준과 학년, 전공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4. 실증분석결과

4.1 표본의 특성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구분	내용	빈도(%)
성별	남	242(55.4)
	여	195(44.6)
나이	18 ~ 20세	114(26.8)
	21 ~ 25세	244(57.4)
	26세 이상	67(15.8)
	평균(표준편차)	22.68(2.43)
학력	전문대학 재학	7(1.6)
	대학재학	421(94.9)
	대학원	14(3.2)
전공	문과/사회과학	225(57.4)
	이과/공과	151(38.5)
	예체능/기타	16(4.1)

4.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검증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은 요인 수를 최소화하면서 정보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성분 분석방법(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이며, 회전방식은 직각회전(Varimax Rotation) 방식을 채택하였다.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요인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부하량이 0.4 이상인 문항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요인 1을 창업에 대한 성공, 요인 2를 창업에 대한 실패에 대한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각 하위요인에서 모두에서 0.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수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 요인분석

[Table 2] Factor analysis

문항	성공 요인	실패 요인
나는 사업가로 성공하고 싶다.	.791	
독립적인 나만의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	.801	
조직의 구성원보다는 조직의 리더이고 싶다.	.676	
나는 회사원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고 싶다.	.554	
명예퇴직이 없는 창업이 미래의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655	
사업 실패에 대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매력적이다	.621	
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594	
사업은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762
사업가의 실패는 가족들에게도 금전적 손실을 입힐 것이다		.733
기업가의 손실은 재물손실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601
실패한 사업가는 인생의 실패와 같은 것이다		.681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615
항상 사업이 실패할까봐 조마조마하다		.522
고유치	2.907	1.480
분산값	30.763	27.715
누적분산값	30.763	57.477

[표 3] 신뢰도 검증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변수명		Cronbach's α
창업에 대한 인식	성공	.759
	실패	.639
시장전망		.668
창업의지		.897

4.3 창업의 성공 및 실패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창업의도에 대한 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model 1에서는 창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지각과 창업의도간에 영향력을 살펴보고 있으며, model 2에서는 성공과 실패 시장전망의 조절역할을 검증하기 위하여 성공과 실패, 그리고 시장전망의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실시하였다. 상호작용항들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 각각의 변수들과 그 변수들과 시장전망간의 곱으로 만들어지는 상호작용항들 간에 심각한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Jaccard et al.[28]의 제안에 따라,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에 들어가는 모든 이론적 변수들을 평균값이 0.1 표준화된 변수들을 사용하여 조절효과항을 만들었다.

model 1과 model 2에서는 분석결과 창업의 성공에 대한 태도는 창업의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 실패에 대한 창업 태도는 창업의도에 부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성공과 실패에 대한 창업 태도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1, 2는 모두 채택되었다.

[표 4]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Table 4] Result of influ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변수	model 1	model 2
	B	B
상수	-.022	-.005
성공	.820***	.618***
실패	-.170**	-.394*
시장전망		-.104
성공*시장전망		.001
실패*시장전망		-.207*
F비	139.878	55.720
R ²	.385	.403
Adj R ²	.371	.395

p* < 0.05, P** < 0.01, P*** < 0.001

시장전망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model 2의 결과 실패와 시장전망 간의 상호작용변수의 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시장전망의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은 창업의 실패에 대한 인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가설 3은 기각되었고 가설4가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성편향성 이론(negativity bias

hypothesis)에 따르면 정보처리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단서보다는 부정적인 단서가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패에 대한 단서가 성공에 대한 단서보다 상대적 영향력이 더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odel 1의 Adj R²값은 .371이고, Model 2의 Adj R²값은 .395로 증가했다.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의 연구가 자영업 선택에 인적 속성, 가족배경 등이 미치는 효과에만 분석의 초점을 맞춘데 반해 본 연구는 지금까지 조망되지 못했던 경제적인 측면인 성공과 손실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구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결과 창업의 성공에 대한 태도는 창업의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 실패에 대한 창업 태도는 창업의도에 부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시장전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실패와 시장전망에서 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창업에 대한 실패의 인식이 높을때 시장전망이 긍정적이더라도 창업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창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직접적으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금까지 개인의 성향이나 심리적 특성 등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특성만을 규명해 왔으나 본 연구결과 실패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 시장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실패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창업을 선택할 의도는 감소하고 있다. 김기승·조준모[1]가 자영업 진출과 경기상황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자영업 진출과 경기상황은 대출 이상의 고학력자들의 경우 정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어 자발적(pulled)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아무리 경기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창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실패가 크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창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창업에 대한 선택 및 의도를 분석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 사실 창업 선택에 대한 입장에서 볼 때 실업에 대한 소극적 대안인지 또는 적극적 선택의 결과인가 하는 질문은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핵심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개인의 인적 자원 수준과 심리적 특성을 통해서 간접적인 추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창업을 소득의 대안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는 점과 그동안 창업 연구의 주제로 제외되었던 실패에 포커스를 맞춰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실패의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기 보다는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심리적 측면에서의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비호의적, 긍정적/부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려는 학습된 것[25]으로 외부의 정보와 경험을 통해 변경될 수 있어 지속적이거나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최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적 제도나 지원은 창업의지를 지닌 잠재적 창업가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창업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겠지만 이러한 측면은 일시적인 효과로만 파악된다. 왜냐하면 본 연구결과 정부의 지원 등의 시장전망이 긍정적일지라도 창업에 대한 인식이 실패인 경우에는 창업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창업의 외형적인 숫자는 미국 등 창업이 비교적 활발한 나라들과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창업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창업은 IMF이후에 생존의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창업을 선택하는 생계형 창업이 많다. 우리나라의 창업의 유형 중에서 가장의 초기 퇴직으로 인한 창업이나 취업시장의 경색으로 할 수 없이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생의 창업이나 대학졸업이후의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체계적인 창업 준비 과정을 거쳐서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 없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준비 없는 창업은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종업원이 되는 취업도 오랜 준비기간을 통하여 기업들이 원하는 교육과정과 어학연구과정 등의 스펙(specification)을 쌓는 과정(process)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단순한 종업원이 되는 취업보다도 종합적인 일을 담당하는 기업가가 되는 창업은 더 많은 준비와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소홀히 여겨지고 있으면 결국은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창업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교과과정과 대학 교육 프로그램에서 핵심 주제로서 교육하고 체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창업의 의미와 목표들에 대하여 교육하여 창업과 창업아이템 등에 대한 관심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오랜 기간 생각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창업과 관련한 과목을 개설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학에서 개설하는 창업관련 과목들은 교양과

목 수준이며, 창업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아이템 등이 미흡하며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37]. 창업교육에 대한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인 창업교육을 위해서는 이론적인 개념보다는 사업기회를 탐색하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더불어 실패시에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지식 등이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Babson College의 Junior Entrepreneurship Program 등에서는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아이디어개발과 창업경제교육 등을 시키고 있으며 Kafufman 재단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단으로 FastTrac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2, 4, 38]. 이와 같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창업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기업과 대학이 주축이 되어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초기에 창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업교육의 체계적인 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육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색된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취업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실패에 대하여 가혹하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사업 재기의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금융거래에서 기업이 은행이나 보증기관 등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 사업주나 대표이사 또는 핵심임원의 연재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관행이 일반화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기업이 실패하는 경우에 창업가의 실패로 이어지고 한번 실패한 창업가는 연대보증의 사슬이나 신용불량자 지정 등 금융거래의 낙인에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창업기업이나 일반기업이 실패한 이후에 실패한 창업이나 기업을 구제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구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창업에서 실패한 이후의 기업들의 회생을 도우는 비용보다는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창업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창업실패 후유증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창업을 단기적인 이벤트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고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체계적인 창업교육이나 전문적인 창업 프로그램은 창업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결과적으로는 창업성공률을 높여 창업활성화와 창업성공이라

는 선순환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창업관련 프로그램에서 창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패에 대한 관리나 교육을 통해서 실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한 해외 창업사례에 대한 연구와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생 등 젊은 잠재적인 창업자들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주로 등장하는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만 보고 벤치마킹하려는 경향에서 신선한 창업성공 드라마와 같은 스토리는 젊은 잠재적인 창업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서 전반적인 창업가 또는 잠재적 창업가에 대한 연구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 실패인식에 대하여 창업가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면 또 다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 실패연구와의 비교연구 등을 한다면 창업실패 인식의 차별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조기창업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하였지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등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겼으며, 본 연구의 결과가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용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Gi Seung Kim, Joon Mo Cho, "Is Self-employment Pushed out or Pulled in?", *KUKJE KYUNGJE YONGU*, 12(2), 163-186, 2006.
- [2] Hae Sun Kim, Bae Jin Park, "The Demand Level for Business Start-up Education and Willingness of Starting a Business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4(4), 139-165, 2009.
- [3] Jae Woo Ryoo, Ho Young Choi, "Self-Employed Workers in Korea",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22, 109-140, 1999.
- [4] Seung Sik Bahn, Sang Gu Seo, Hyun Sook Lee, Donna J. Kelley, Yong Sam Lee,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 2008 GEM Korea Report",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09.
- [5] Bong Sik Bin, Jung Ki Park, "An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a Small Business Starting-up",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24(3), 135-158, 2002.
- [6] Geun Ha Suh,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men and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uccess of the Small Businesses", Ph. D. Dissertation, Dong A University, 2006.
- [7] Jai Mie Sung, Jo Yup Ahn, "An Empirical Study on the Duration of Self-employment",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26(2), 1-30, 2003.
- [8] Jai Mie Sung, Jo Yup Ahn, "Measurement of Risk Tolerance and Its Role in Choosing Self-employment",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13(1), 125-193, 2007.
- [9] Seo Jung-Hae, "The Thinking of the University Students about an Entrepreneur in Korea, China, and Japan",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43(1), 153-171, 2006.
- [10] Keum Soon Shin,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a Small Business Starting-up", M.A.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2002.
- [11] Shin Mo Lee, "A Study on the Start Business of US, Japan & Korean Collegiates",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9(3), 186-207, 2005.
- [12] Ji Woo Le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22(1), 121-146, 2000.
- [13] Joo Heon Lee, "A Study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s and Entrepreneurial Decision Making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 93-116, 2008.
- [14] Byung You Cheon, "A Study of Selection of Self-employment in Korea",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26(3), 149-179, 2003.
- [15] Dae Yong Chung,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Social Cultural Dimensions",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 10(1), 59-85, 1999.
- [16] Sung Han Jeng-Hae Ryong Kim, "An Exploratory Study on Success Factors in Small Business Startups",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4(2), 3-29, 2001.
- [17] Kyu Soo Ha, Jeong Hwa Han, "A Study on the Failure-Stress of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2(1), 21-41., 2010.
- [18] Jeong Hwa Han, Baeg Yun Jeng, "An Exploratory Study of Business Start-up Reasons of Women Entrepreneurs and Management Characteristic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25(3), 329-355, 2003.
- [19] MBC News, 2009.3.3.
- [20] Arum, Richard, Michelle Budig, & Don Sherman Grant II, "Labor Market Regulation and Growth of Self Employ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30(4), 3-27, 2000.

[21] Becherer, R. C. & Maurer, J. G., "The Proactive Personality Disposition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among Small Company Presiden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7(1), 9-37, 1999.

[22] Boyd, D. P. & Gumpert, D. E., "Coping with Entrepreneurial Stress",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 44-64, 1983.

[23] Coleman, S., "Access to Capital and Terms of Credit ; A Comparison of Men-and Women-Owned Small Busin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8(3), 37-52, 2000.

[24] Dollinger, M. J., "*Entrepreneurship, Strategies and Resources*", Boston, Irwin, 1995.

[25] Eagly, A. & Chaiken S., "The Psychology of Attitude", Tronto: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1993.

[26] Hodgetts R. M. & Kuratko, D. F., "Small Business Management", John Wiley & Sons Inc, 2006.

[27] Hodgett R. M. & Kuratko, D. F., "Entrepreneurship: A Contemporary Approach", 3rd. ed., Dryden, 2006.

[28] Jacard, J., Turrisi, R. & Wan, C. K., "Interaction effects in multiple regression", Newbury Park, CA : Sage, 1990.

[29] Kim, Gi Seung, "The Analysis of Self-Employment Levels Over the Life-Cycl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Forthcoming, 2006.

[30] Matsuno K., Mentzer, J. T. & Ozsomer, A.,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Proclivity and Market Orientation on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Marketing*, 66(3), 18-32, 2002.

[31] Mazzarol T., Thiery V., Noelle D. & Vicki T., "Factors Influencing Small Business Start-up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5(2), 48-63, 1999.

[32] Peterson S. J. & Lee S. M., "Cultur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Global Competitiveness", *Journal of World Business*, 35(4), 129-139, 2000.

[33] Siu W. S., "Marketing Activities and Performance A Comparison of the Internet-based and Traditional Small Firms in Taiwan",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31(2), 177-188, 2002.

[34] Timmons, J. A. & Spinelli S.,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McGraw-Hill, 2006.

[35] Venkataraman, S., A.H. Van de Ven, J. Buckeye & R. Hudson, "Starting Up in a Turbulent Environment: A Process Model of Failure Among Firms with High Customer Depende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 277-295, 1990.

[36] Wiklund, J. & Shepherd 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Small Business Performance: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1), 43-58, 2005.

[37] Young Du Mok, "A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Curriculum Development Model Designed to Systemiz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Undergraduate School", Ph. D. Dissertation, Chung ang University, 2011.

[38] Dan Senior, Saul Singer, "Start-Up Nation", DAHAL MEDIA, Inc, edited. by yoon jon glok, 2011.

하 규 수(Ha-Kyu Soo)

[정회원]



- 1998년 6월 : 미국 Touro 법과 전문대학원 졸업 (J.D.)
- 1999년 6월 : 미국 Georgetown 법과전문대학원 졸업 (LL.M.)
- 1998년 8월 : 미국 뉴욕주변호사 · 미국 연방변호사
- 2009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창업, 벤처, 경영전략, 상거래법

윤 백 중(Yoon, Baik Jung)

[정회원]



- 2005년 8월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석사)
- 2008년 1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회 부회장
- 2005년 7월 : 삼화비닐판매(주) 회장
- 2010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창업, 벤처, 경영전략, 상거래법

[부록] 선행연구 정리

[Appendix] Precedence collection

구 분	대분류	창업자특성							
	중분류	배경특성				심리특성			
	소분류	1	2	3	4	1	2	3	4
국 내	신금순 (2007)					o	o	o	o
	서근하 (2006)							o	o
	빈봉식 (2002)		o		o	o	o	o	o
	정성한 (2001)				o				
국 외	Timmons & Spinelli (2006)					o	o		o
	Hodgetts (2006)							o	o
	Hodgetts & Kuratko (2006)					o	o	o	o
	Wiklund & Shepherd (2005)					o		o	o
	Siu(2002)			o	o				
	Matsuno et al.(2002)							o	o
	Peterson & Lee(2000)					o	o		
	Coleman (2000)	o							
	Mazzarol et al.(1999)	o	o	o	o				
	Becherer (1999)						o	o	o

* 배경특성 : 1. 성별 2. 연령 3. 학력 4. 경험/

* 심리특성 : 1. 성취욕구 2. 통제위치 3. 위험감수성향
4. 모호성수용력